

# 33조 투입 일자리 사업...3개 중 1개는 '개선·감액' 필요

### 고용부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공개 평가 대상 사업 145개 중 개선 필요 36개·감액 14개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지킴이' 등 모호한 사업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총액 극복 등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33조원을 투입한 재정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는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고 등급 구조를 개편하는 등 평가 방식을 보다 체계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모두 214개였다.

이 중 전문가가 평가 가능한 사업 145개에 대해 만족도 조사, 예산

집행률 등을 지표로 등급을 매긴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이 필요한 사업을 합하면 50개로, 이는 전체의 34.4%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4차례의 추경(8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33조 600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3개 중 1개는 사업이 부실했다는 얘기다.

감액 등급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등 사실상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일자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민간 취업 연계가 곤란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고용부는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

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이 부여됐다"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전체의 약 10%를 감액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을 권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별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 등급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1회 제외하고, 필요 시 예산 증액 의견 첨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 교육부의 '대학창업활성화'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추경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25조5000억원)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11.2%,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실업소득 40.6% 등이었다.

이를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명이었으며, 이 중 청년이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은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일자리 예산은 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 이어 최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이 각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계란 가격 언제 떨어질까'** 5일 오전 서울의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6월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누계 대비 12.6% 뛰어들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1991년(14.8%)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파가 올 상반기 156.6% 급등, 사과(54.3%) 역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계란의 경우 38.9% 올라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 기업 10곳 중 7곳 "여름철 반바지 출근 긍정적"



여름철 직장 자율화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반바지와 샌들 등을 허용하는 '완전 직장 자율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제 도입한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해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모습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92개사를 대상으로 '여름

철 직장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7.1%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장이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71.2%·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 같아서'(51.8%),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30%),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것 같아서'(22.4%), '개성을 중

시하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이어서'(16.7%), '냉방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절약할 수 있어서'(15.5%)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162개사)은 '복장에 격식이 필요한 직무, 업종도 있어서'(54.9%·복수응답), '상호간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38.3%), '부적절한 복장 착용자 발생 및 관련한 직원 간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22.8%), '긴장감이 떨어지는 등 업무 효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17.9%), '조직 기강이 해이해질 것 같아서'(11.1%) 등으로 답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반바지에 샌들까지 가능한 '완전 자율화'를 적용한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26%에 그쳤다.

이들 기업들은 완전 직장 자율화가 회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업무 효율 향상'(50.8%·복수응답),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 형성'(49.2%), '직원 만족도와 애사심 향상'(36.7%), 'MZ세대,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20.3%) 등으로 답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대신에 '전체적인 회사 기강이 해이해질'(3.9%), '부적절한 복장에 대한 직원들 간 트러블 발생'(3.1%), '오히려 업무 효율이 저하됨'(0.8%)처럼 부정적인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 중 대부분(99.2%)은 앞으로도 자율 복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GS칼텍스, 하이패스처럼 기름 넣는다

### 주유·세차·주차 한번에 대행해주는 '컨시어지' 탑재

GS칼텍스가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플러스(energy plus) 모바일 앱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GS칼텍스는 5일 에너지플러스 앱 베타버전을 출시하고, 사전 신청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0명의 고객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말까지 베타버전을 운영하면서 고객 체험단을 통해 앱의 주요 기능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전달받아, 오는 9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정식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에너지플러스 앱의 주요 기능인 '바로 주유' 서비스는 고객이 유종, 주유량 등 주유 패턴과 결제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주문과 결제가 한번에 이뤄지는 서비스다.

GS칼텍스의 바로 주유 서비스는 주유소를 사전에 지정해 예약하는 기존의 다른 간편 서비스와 달리, 바로 주유 서비스가 가능한 GS칼텍스 주유소라면 어디에서든지 주유소 사전 지정 없이 하나의 주유 패턴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베타 서비스 기간에는 240여개의 직영주유소에서 바로 주유 서비스가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자영주유소를 포함해 8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

에너지플러스 모바일 앱 베타버전에는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도 탑재했다. GS칼텍스의 컨시어지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GS타워를 거점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GS타워를 방문해 전담 직원에게 차량 키만 맡기면 주유·세차·주차를 한번에 대행해주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유 대행은 GS타워 인근의 주유소를 활용하고, 스티세차와 주차 대행은 GS타워 내 전용 공간에서 이뤄진다. 고객은 모든 서비스가 끝나면 원하는 시간에 다시 방문하여 차량 키를 받아 출차하면 된다.

서선욱기자

## 하이트진로, 이슬톡톡 레모나 한정판 출시

### 경남제약과 컬래버레이션

하이트진로는 과일탄산수 이슬톡톡 복숭아, 파인애플에 이어 '이슬톡톡 레모나'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슬톡톡 레모나는 경남제약의 레모나와 컬래버레이션을 한 제품으로 한정판 출시한다.

이슬톡톡 레모나는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으로 기획됐다. 레모나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신제품은 이슬톡톡의 기분좋은 청량함에 레모나의 상큼한 맛과 향을 더해 특색있게 구현했다.

이슬톡톡 레모나는 알코올도수 3도, 355ml 캔제품으로 출시되며 오는 9월 전국 마트, 슈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에 앞서 6일부터 코다차야, 새마을포차 1970, 크라운호프, 경성주막 등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먼저 출시된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새로운 맛과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해 한정수량으로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슬톡톡만족음이나 톡톡 튀는 마케팅 활동으로 국내 주류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위택스도 카카오·PASS·페이코로 본인 인증

### 행안부, 민간 전자서명 관련 인증도입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도 카카오나 페이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위택스에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다.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 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

행, NHN페이코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위택스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취득세를 통상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결제 수단으로 나눠 낼 수 있지만 그간 온라인으로는 불가

했다.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분할납부 신청 후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추후 배우자와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위택스 문자(SMS) 인증과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